

병든 지구 '모성' 이 살린다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10

문화 여성주의

■ 문화 여성주의

77년 가을 이화여대에 국내 처음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된 이후 20여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모했다. 여기에는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이데올로기로 꼽히는 여성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여성학계는 관심이 낡아온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문화여성주의'를 주장해 주목 받고 있다. 문화여성주의란 여성적인 것, 즉 여성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감성이 인류 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달리보고 여성 권리를 찾기 일변도였던 과거의 여성주의에서 많이 벗어난 셈이다.

이수자(성신여대 강사·여성학)씨는 "문화여성주의는 모성을 바탕으로 욕구충족에 치중하는 자본주의, 과학주의, 소비주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 젠더(Gender)의 인식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20세기의 여성들은 대부분 권위적이고 편협한 남성중심의 가정과 사회 질서에 충돌해 왔다. 여성학자들은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이 질서의 부산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성의 활동을 전권과 이중적인 잣대로 재단하려는 속성이 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도시에서의 교육환경

우리 사회에는 활동적인 여성들을 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활동을 '치맛바람'으로 비웃는 경향이 있다. 최근까지도 <우리말 큰사전> (옛센스) 등 대부분의 국어사전들이 치맛바람을 '여자들의 극성스러운 사회 활동' '설치는 여인의 서술' 등으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모성의 사회화'가 적극 대두되면서 치맛바람을 '여성의 세력' 또는 '사회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국어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획취재팀

정성은 차장
한영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성차별 폐지운동 90년대에는 성 차별적인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개정하려는 여성계 움직임이 거셌다. 사진은 가족법 개정 여성대회.

남성우월 소비주의의 틀개는 새 가치관 모성애는 생명사상 실천하는 자비 불교계 여성인력 양성·공동체운동 나서야

살을 고백하는 행위"라며 "선별 임신기술이 발전하면 한국의 성비는 109:1(남성:여성)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여성권발전지수(GEM)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지위는 아프리카의 말리(72), 아시아의 방글라데시(80)의 뒤를 이어 세계 102개국 가운데 83위.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여성차별 실태의 한 단면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시작될 여성에 대한 편견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승진 기회에 인색한 직장으로, 대가없는 현신을 요구하는 가정으로 확산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 아픔마를 가장 천덕꾸러기 계층으로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성 중심적 사회의 통념으로 아픔마의 정의는 바로 성적 긴장과 유혹을 상실한 나이든 여자이다. 그러다 보니 아픔마들은 수다, 무례, 탐욕, 억척, 무식, 극성의 대명사처럼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학계는 여성을 생물학적 성별인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로써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을 뜻한다. 사회문화적으로 본 아픔마는 결코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한의사 고광순씨는 "출산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갖는 여성은 사회를 살리는 원초적 힘이 된다"고 말한다. 시인 김지혜씨는 "모성을 바탕으로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아픔마야말로 한국사회를 개혁시킬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아픔마조직 '새날 여성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예이다. 93년 12월 이 지역 주부들이 만든 지역여성자치조직인 여성회는 아픔마 인형극단 표주박은 물론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활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4년전 시작한 구시외회 방청단 활동도 새날여성회 아픔마들이 어느새 지역 정치의 무서운 감시단으로 만들

었다. 낡고 기르고 지키는 '모성'이 하나가 돼,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길러내고 더 나아가 환경운동 공동육아조합운동 합교육운동 아나바다운동 등을 전개해 지역 공동체를 가꾸고 있는 것이다.

조옥리(이화여대·여성학) 교수는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회적 갈등과 경쟁을 '조화'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여성성, 21세기 원동사상

여성성의 인식은 불교계 여성불자들이

◇세계 여성해방운동 주요 연표

연도	활동내용
1848년	세계 최초 여성권리회의가 미 세네카 폴즈에서 열림
1918년	영국 여성참정권 획득
1920년	미국 여성참정권 획득
1923년	진국여성당 헌법수정안(남녀평등권)을 의회에 제출
1929년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출판
1949년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출판
1950년	미국의 여성취업률 30%(미혼자 50%, 기혼자 25%)
1963년	베티 프리던 <여성의 신비> 출판, 1970년까지 5백만부 판매
1964년	미국 시민권리법안 개정, 인종·성·종교·출신지 때문에 고용주나 고용기관, 조합이 고용차별을 할 수 없다는 내용, EEOC(고용평등기회위원회) 설립
1968년	미국 '뉴욕급진여성' 단체가 애클랜드에서 열린 미스아메리카 반대시위
1969년	미국 '보스턴 여성건강 혁명'이 <우리 몸, 우리 자신: 여성에 의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책> 출판, 1997년까지 4백만부가 팔림
1973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절권 합법화
1973년	미국 군대는 여군제도를 폐지시키고 통합시킴
1978년	미국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에 더 많이 입학함
1978년	포르노그래피 반대 여성모임 결성, '밤을 피우자'는 대규모시위가 열림
1989년	바버라 헤리스 신부, 최초의 성공회 여성주교로 서품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